



책으로 소통하는 '파주북소리 2012'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강좌·전시·공연 개최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파주북소리(PAJU BOOKSORI)'가 경기도 파주출판도시에서 '책으로 소통하는 아시아'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동안 열린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파주북소리 2012'는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출판계 인사들과 국내의 200여개 출판사 및 300여개 문화예술 단체가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행사로 치러진다. 이에 앞서 파주출판도시는 지난 6월 책의 가치를 높이는 국제적 연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전 세계 16개(13개국)의 책마을이 가입해 있는 세계책마을협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Booktowns: IOB)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출판도시내 100여 개 건물과 야외의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기존의 도서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책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시와 강연,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시도 참가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 홍보에 나선다.

'책으로 소통하는 아시아' 주제로 다양한 특별전 개최

파주북소리 2012에서는 '한글 500년의 대장정' 특별전, '추억의 그 잡지' 특별전, '북어워드 수상작' 특별전 등의 전시행

사가 개최된다.

'한글 500년의 대장정' 특별전은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한글 창제 당시의 문헌자료에서부터 오늘의 디지털 미디어까지 500년에 걸쳐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해 온 한글의 발자취를 탐색한다. 버선본, 부적, 분판, 담뱃대 등 다양한 한글 관련 생활 자료들이 전시된다.

'추억의 그 잡지' 특별전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2011년 '12개의 서고를 열다' 전에 이어 국립중앙도서관이 기획하는 두 번째 전시인 '추억의 그 잡지' 특별전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잡지 가운데 희귀본과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들을 모아 보여준다.

'파주북어워드 수상작' 특별전은 올해 신설된 저작상, 기획상, 출판미술상, 특별상 등 4개 부문 수상작(수상도서) 및 작가의 프로필, 사진 등을 전시한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홍콩 등 동북아시아의 대표 출판인들이 추천하는 도서들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책마을 운동의 지원지인 유럽의 주요 책마을과 호주, 말레이시아의 책마을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책마을회의(9월 16일)와 책마을 운동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제 연대를 도모하는 세계책마을심포지엄(World Booktowns Symposium)이 열린다. 심포지엄에는 Redu(벨기에), Saint-Pierre-de-Clages(스위스), Tvedestrand·Fjæland(노르웨이), Clunes(호주), Bomby(스웨덴), Kampungbuku(말레이시아), Hay on Wye(영국), 동경고서조합(일본) 등이 참가한다.

세계적 석학·문인 한자리에

역사, 출판,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석학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강연도 눈길을 끈다.

‘한글 500년의 대장정 기념강좌’는 9월 17일 한글특별전에 발맞추어 한글의 역사와 언어적 특징, 창제 배경, 기타 언어와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조명한다.

유네스코에서 2012년 세계 문화인물로 선정한 실학자 정약용 탄생 250주년을 맞아 9월 20일 아시아출판문화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다산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재조명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다산 연구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한 석학들이 시인, 경제가, 철학자, 과학자인 다산의 사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울러 다산 저작 전시와 다산의 시를 노래로 만든 가곡을 선보이는 ‘다산의 밤’ 행사도 열린다.

또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인 기 소르망 교수의 특별강연회도 개최된다.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기 소르망 교수는 국가브랜드 정책, 문화 마케팅과 문화 홍보 등 여러 문화 관련 주제들에 대해 제시해 왔는데, 이번 특강에서는 ‘한류문화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일본 최고의 역사 소설가로 꼽히는 사토 겐이치도 내한해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영복, 도정일, 권영민, 문용린 교수 등도 강연자로 나선다.

책에 빠지고 음악에 취하다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9월 21일 ‘김소월 문학의 날’에는 한국문학의 최고봉이자 개척자인 시인 김소월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 수많은 후배 문인들과 문학도들이 시낭송, 강연회 등을 통해 소월이 이룩한 문화적 업적을 기린다. 특히 소월 시인의 증손녀이자 성악가로 활동중인 김상은씨가 소월의 시에 곡을 붙인 창작 가곡을 노래한다.

이외에도 개막공연, DMZ영화제 공연, 북콘서트, 거리공연 등 출판도시 전역에서 문학, 음악,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인쇄, 종이, 북아트, 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출판사, 인쇄사 방문 등의 행사를 계획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책과 관련한 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파주북소리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파주북소리 축제에 30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몰리는 등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2011년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선보이게 된 ‘파주북소리 2012’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책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복합지식문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축제 일정은 파주북소리 2012 공식 홈페이지(www.pajubooksor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2. 지난 2011년 행사모습. 노벨문학상 110주년 특별전과 북마켓 현장 3. 파주북소리 2012 포스터